

답

1. ④	2. ④	3. ⑤	4. ③	5. ②
6. ④	7. ⑤	8. ⑤	9. ③	10. ③
11. ⑤	12. ④	13. ③	14. ①	15. ①
16. ④	17. ④			

상세 해설

1번 정답: ④

윗글의 넷째 문단에서는 "수정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이 부족했는지, 글의 단서를 잘못 해석했는지, 아니면 필자가 의도적으로 독자의 예상을 벗어나는 서술을 했는지 등을 파악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예측이 틀린 원인이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반드시 독자의 배경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④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번: 둘째 문단에서 "예측은 독자가 이미 읽은 내용과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미리 짐작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②번: 셋째 문단에서 "독자는 읽기 과정에서 예측한 내용과 실제로 읽은 내용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③번: 셋째 문단과 넷째 문단에서 예측과 실제 내용이 다를 때 "기존의 예측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 ⑤번: 마지막 문단에서 "예측과 수정의 순환적 활용"을 통해 "독자는 수동적인 정보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인 의미 구성자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번 정답: ④

윗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예측과 수정의 순환적 활용은 독서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글의 구조와 논리를 파악하는 능력도 향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독자가 예측과 수정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글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로, ④번이 가장 적절한 추론이다.

[오답 분석]

- ①번: 예측이 계속 맞는다는 것은 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이지, 비판적 사고가 활발해진다는 내용은 지문에서 추론할 수 없다.
- ②번: 둘째 문단에서 "글의 제목, 목차, 첫 문장 등 다양한 단서를 활용"한다고 했으므로, '유일한 단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③번: 오히려 예측과 실제 내용이 다를 때 수정 과정을 통해 글의 논리 구조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⑤번: 필자가 의도적으로 독자의 예상을 벗어나는 서술을 하는 것도 글쓰기의 한 전략이며, 이것이 독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

3번 정답: ⑤

영희의 초기 예측이 틀렸다고 해서 이후에 예측 전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윗글에서는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다음에 나올 내용을 예측하고, 실제로 읽은 내용과 비교하여 예측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수정된 예측은 다시 다음 내용을 예측하는 기초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영희는 초기 예측을 수정한 후에도 계속해서 글을 읽으며 새로운 예측과 수정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⑤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 ①번: 영희가 제목을 보고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과 긍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예측 전략의 전형적인 예이다.
- ②번: "첫 문단을 읽어보니" 예상과 달랐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예측과 실제 내용을 비교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 ③번: "이 글이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다룬다고 생각을 수정"한 것은 수정 전략을 적용한 것이다.
- ④번: 영희가 처음 예측 → 비교 → 수정 → 재예측 → 재수정의 과정을 거친 것은 전략의 순환적 활용을 잘 보여준다.

4번 정답: ③

[출제 의도 및 평가 원리]

이 문항은 내용 일치형 문항으로,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했는지를 평가합니다. 특히 경제성 있는 소행성의 세 가지 조건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학생들이 흔히 '좋은 조건들은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기 쉬운데, 이 문항은 그러한 오류를 점검합니다.

지문의 3문단에서 "경제성 있는 소행성은 높은 금속 함량, 지구와의 근접성, 낮은 상대 속도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 후, "금속 함량이 높은 소행성일수록 대체로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지구 근처의 소행성은 금속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금속 함량과 지구와의 거리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금속 함량이 높을수록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③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2문단에 "초기 투자 비용은 크게 우주선 개발비, 채굴 장비 제작비, 발사 비용으로 구성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번: 2문단에 "지구와 소행성 간의 거리로 인한 통신 지연은 자율 운영 시스템의 개발을 필수적으로 만들며"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 ④번: 3문단에 "소행성과 지구의 상대 속도가 클수록 궤도 진입과 이탈에 필요한 에너지가 증가하여 연료 비용이 상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⑤번: 5문단에 "채굴된 자원을 우주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구 귀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5번 정답: ②

[출제 의도 및 평가 원리]

㉠, ㉡ 표기를 활용한 문항으로, 경제학적 개념(시장 메커니즘, 외부효과)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단순한 표면적 이해가 아닌, 각 현상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경제·기술 융합 지문의 특성상 경제학적 사고력과 기술 혁신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평가합니다.

㉠은 "대량의 희귀 금속이 지구로 반입될 경우 해당 금속의 시장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을 가리키는데, 이는 공급이 급격히 증가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시장 메커니즘입니다. ㉡은 "기술 혁신의 파급효과라는 긍정적 외부효과"로, 지문에서 "채굴 기술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우주 탐사 기술, 자율 로봇 기술, 원격 조종 기술 등은 다른 산업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기술이 다른 산업으로 전파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은 대량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필연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은 지문에서 명시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단순히 부수적 효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 ③번: 지문에서 ㉠과 ㉡의 시간적 선후관계나 단기/장기 구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 ④번: ㉠은 시장 가격 변화이므로 해당 금속을 사용하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⑤번: 지문에서는 ㉠에 대해 "공급 조절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여 시장 조절의 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파급효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번 정답: ④

[출제 의도 및 평가 원리]

이 문항은 개념 적용형 고난도 문항으로, 지문에서 제시된 소행성 선정의 세 가지 조건(금속 함량, 거리, 상대 속도)이 서로 상충하는 관계임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특히 단순한 수치 비교가 아닌, 복합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수능에서 요구하는 복합적 사고력과 실제 적용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변별력 있는 문항입니다.

소행성 X의 금속 함량이 5배 높더라도, 왕복 시간이 10년으로 Y의 3년보다 3배 이상 길어 기회비용이 매우 크고, 상대 속도가 커서 연료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지문에서는 금속 함량, 거리, 상대 속도가 "서로 상충하는 관계"에 있어 "최적의 목표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복잡한 최적화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금속 함량이 높다고 해서 증가된 시간과 비용을 완전히 보상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X의 백금 함량(50g/톤)이 Y(10g/톤)의 5배이므로 단위 질량당 가치도 5배 높습니다.
- ②번: 지문에 따르면 "상대 속도가 클수록 궤도 진입과 이탈에 필요한 에너지가 증가"하므로, 상대 속도가 작은 Y의 연료 비용이 적을 것입니다.
- ③번: 지문에서 백금의 연간 생산량이 약 200톤인데 수천톤이 공급되면 가격 붕괴 가능성을 언급했으므로, 1,000톤 채굴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⑤번: 지문에서 "발사 비용만으로도 수익 달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7번 정답: ⑤

[출제 의도 및 평가 원리]

이 문항은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된 경제성 확보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했는지 평가합니다. 특히 지문에서 우려하는 '가격 하락' 문제와 정반대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지문의 논리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단순 암기가 아닌 논리적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지문에서는 소행성 채굴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조건으로 발사 비용 하락, 채굴 효율 향상, 우주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회귀 금속 가격의 대폭 상승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문단에서 대량 공급 시 "가격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여 가격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경제성 확보는 지문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5문단에서 "발사 비용이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번: 5문단에서 "채굴 효율이 현재 예상치의 3배 이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③번: 4문단에서 "공급 조절 전략과 시장 수용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번: 5문단에서 "우주에서의 자원 활용 인프라가 구축되어 지구 귀환 없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면"이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번 정답: ⑤

지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전통적 노동자와의 비교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았다. 지문은 플랫폼 노동의 법적 지위와 경제적 종속성의 개념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구체적인 소득 수준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들 분석]

- ①번: "플랫폼 기업들은 이들을 '파트너' 또는 '독립 계약자'로 명명하며 자영업자로 분류하지만"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음
- ②번: 3문단에서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함
- ③번: 2문단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일감을 배분하고, 노동 과정을 세밀하게 통제하며, 평점 시스템으로 노동자를 평가한다"고 구체적 방식을 제시함
- ④번: 4문단에서 "중간 범주의 도입이 기업들로 하여금 완전한 노동자성 인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명시함

9번 정답: ③

A씨는 월 수입의 95%를 한 플랫폼에서 얻고 있어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고 있으며,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정한 배달료(3,000원)와 수락률, 평점 기준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문에서 설명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정한 수수료율과 노동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경제적 종속성의 전형적 사례이다.

[오답 분석]

- ①번: 인적 종속성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감독"을 전제로 하는데, A씨는 알고리즘을 통한 간접적 통제를 받으므로 인적 종속성 기준으로는 노동자성 인정이 어려움
- ②번: A씨는 "언제든지 앱을 켜고 끌 수 있어" 형식적 자율성은 가지고 있음
- ④번: A씨의 상황은 전통적 자영업자와 달리 경제적 종속성을 보이므로 노동법적 보호가 필요함
- ⑤번: 실질적으로는 플랫폼의 조건에 종속되어 있어 가짜 자영업에 해당함

10번 정답: ③

지문에서 "플랫폼 노동의 경우 알고리즘을 통한 간접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형식상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인적 종속성 기준만으로는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다.

[오답 분석]

- ①번: 지문에서는 경제적 종속성이 플랫폼 노동자의 실상을 더 잘 반영한다고 설명함
- ②번: 경제적 종속성은 경제적 의존과 일방적 조건 수용을 전제로 하며, 구체적 업무 지시는 인적 종속성의 특징임
- ④번: 경제적 종속성은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주목받는 개념이며, 전통적 공장제 노동을 전제로 한 것은 현행 노동법임
- ⑤번: 두 개념은 플랫폼 노동에서 서로 다른 판단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적 종속성이 주목받고 있음

11번 정답: ⑤

'확대해야'는 '범위나 규모를 넓혀야'의 의미로, '신장(伸張)해야'는 '늘이고 펼쳐야'라는 의미로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확대'는 법 해석의 범위를 넓힌다는 의미이므로 '확장(擴張)해야'나 '넓혀야'가 더 적절한 표현이다.

적절한 바꿔쓰기 분석

- ①번: '가짜 자영업'에서 '가짜'는 '실체가 아닌 거짓된'의 의미로 '허위(虛僞)'와 적절히 대응됨
- ②번: '배분하고'는 '나누어 주다'의 의미로 '할당(割當)하고'와 적절히 대응됨
- ③번: '포괄하기에는'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다루기에는'의 의미로 '아우르기에는'와 적절히 대응됨
- ④번: '제3의 범주'는 '세 번째 범주'의 의미로 '중간(中間)범주'와 적절히 대응됨

12번 정답: ④

지문의 (가) 다섯째 문단을 보면 "위성에는 세 개의 독립적인 원자 간섭계가 탑재되어 교차 검증을 수행하며, 각 간섭계는 서로 다른 원자종과 레이저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동일한 원자종과 레이저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④번이 지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분석]

- ①번: 첫 문단에서 QGIM이 원자 간섭계를 위성에 탑재했다고 명시됨
- ②번: 둘째 문단에서 경로 간 중력 포텐셜 차이가 간섭무늬로 나타난다고 설명
- ③번: 넷째 문단에서 양자 얽힘으로 한 원자의 측정이 다른 원자에 즉각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
- ⑤번: 다섯째 문단 마지막에 개별 측정값의 불확정성이 언급됨

13번 정답: ③

[출제 의도] 이 문제는 세 가지 철학적 입장(칸트의 선험적 인식론, 버클리의 관념론, 과학적 실재론)의 핵심 차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각 입장이 '현상과 실재', '인식과 존재'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칸트: ㄱ에 동의 (측정값은 인식 형식에 의해 구성된 '현상'), ㄷ에 반대 (물자체는 인식 불가능)
 - 버클리: ㄴ에 동의 (지각되어야만 존재), ㄷ에 반대 (지각 독립적 실재 부정)
 - 과학적 실재론자: ㄷ과 ㄷ에 동의 (객관적 실재 긍정, 예측력이 실재성 입증)
- 따라서 "버클리는 ㄴ에 동의하고, 과학적 실재론자는 ㄷ에 동의하겠군"이 정답이다.

[오답 분석]

- ①번: 버클리는 ㄴ에 동의할 것임
- ②번: 칸트는 ㄷ(객관적 실재)에 동의하지 않음
- ④번: 버클리는 ㄷ에 동의하지 않음
- ⑤번: 칸트는 ㄱ에 동의함

14번 정답: ①

[출제 의도]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가 왜 '역설'인지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측정 행위가 대상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양자역학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근본적인 역설"은 셋째 문단에서 설명된다. 측정 이전의 원자는 "모든 가능한 경로의 중첩 상태"에 있지만, "간섭무늬를 관측하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하면서 특정한 위상차 값이 결정된다." 이처럼 측정 행위가 대상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역설의 핵심이다.

[오답 분석]

- ②번: 서로 다른 원자종 사용은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것이지 역설과 무관
- ③번: 정보 손실이 아니라 상태 변화가 문제
- ④번: 양자 얽힘의 비국소성은 동시 측정을 가능하게 함
- ⑤번: 극저온은 기술적 조건이지 역설의 원인이 아님

15번 정답: ①

[출제 의도] 양자역학의 '상보성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동일한 대상이라도 측정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측면이 드러난다는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보적 정보"는 양자역학의 상보성 원리를 나타낸다. 지문 마지막에서 "측정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상보적' 정보가 드러난다는 사실은, 실재가 단일한 방식으로 포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이는 동일 대상이라도 측정 방식에 따라 서로 배타적이면서도 보완적인 정보가 얻어진다는 의미다.

[오답 분석]

- ②번: 단순 합산이 아닌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
- ③번: 측정 오차 상쇄와는 무관
- ④번: 통계적 앙상블은 별개의 내용
- ⑤번: 철학적 입장이 아닌 양자역학적 측정의 특성

16번 정답: ④

[출제 의도] 각 철학적 입장을 구체적 실험 결과에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특히 칸트의 '물자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칸트의 관점에서 중력장은 '물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 형식에 의해 구성된 '현상'이다. 따라서 이 실험이 "중력장이 물자체로서 직접 관측되었음을 증명한다"는 해석은 칸트의 입장과 정반대이다. 칸트는 물자체는 결코 직접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답 분석]

- ①번: 양자 얽힘의 비국소적 영향은 지문에서 설명된 내용과 일치
- ②번: 개별 측정값의 무작위성은 양자역학의 확률적 특성을 보여줌
- ③번: 예측력은 과학적 실재론의 주요 논거
- ⑤번: 버클리는 측정 전 확정된 속성의 존재를 부정

17번 정답: ④

[출제 의도] 철학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함축'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논리적 필연성을 나타내는 용어의 의미를 문맥을 통해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 "함축하지 않는다"에서 '함축'은 '어떤 것이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수반하거나 내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인식론적 한계가 존재론적 비실재성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 "철학적 주장이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존재론적 입장"도 마찬가지로 철학적 주장이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존재론적 입장을 의미하므로,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깝다.

[오답 분석]

- ①②③⑤번: 모두 '함축'이 단순히 '포함하다' 또는 '암시하다'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어, ㉠의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함의와는 거리가 있음